

공공재는 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까

불완전경쟁·외부효과·공공재

안녕하세요. 지난 회에서는 수요·공급이론의 마지막 부분인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빈도가 높고, 앞에서 배운 ‘수요·공급 곡선의 형태’나 ‘가격 탄력성’과 연계한 3점짜리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시장의 실패와 이러한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요인인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패는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상품·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독점시장에서는 시장균형점이 아닌 독점기업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수준에서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은 효율적인 가격보



다 높게, 생산량은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적게 결정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 또는 편익이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된 비용 혹은 편익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기업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자동차 생산 비용은 생산 비용에 환경오염의 비용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됩니다.

또한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의 편익을 누리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산·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하게 됩니다. 독점시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반독점법’과 같은 규제를 실시하고, 외부효과와 외부효과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와 외부효과는 세금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해서 과소공급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불완전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수능 기출 : 불완전경쟁과 진입장벽

다음은 경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시장가격을 정할 수 있다.
- ㉡ ㉡에서는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 ㉢ ㉢은 기술혁신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주기 위한 것이다.
- ㉣ 동일한 제품이라면 가격은 시장 구조가 ㉠일 경우보다 ㉡일 경우에 높다.
- ㉤ 동일한 제품이라면 생산량은 시장구조가 ㉠일 경우보다 ㉡일 경우에 적다.

(해설)

㉠의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따르는 가격 수용자(Price Taker)로서 행동합니다. ㉡의 독점시장은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가격 책정자(Price Maker)로서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 특허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진입장벽의 한 형태입니다. 각 선택지를 보면 ㉡ 독점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특허권은 신약 개발이나 기술혁신과 같이 외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에 해당합니다. ㉣, ㉤ 시장 구조가 독점시장일 경우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량을 제한해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독점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에 비해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습니다. 정답은 ㉠.

2014 수능 기출 : 외부효과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독감 인플루엔자의 번식이 억제되어 (나) 주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면, 사회적으로는 (다)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기]

- ㉠ (가)는 (나)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준다.
- ㉡ (다)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독감 백신 접종을 더 적게 받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 ㉢ 보건소의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라)에 해당한다.
- ㉣ 위의 자료와 유사한 사례로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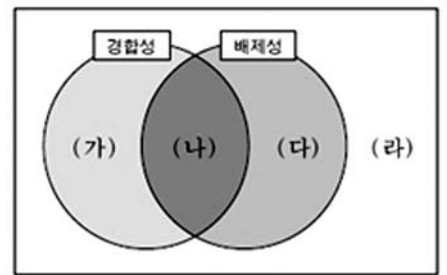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해설)

우선 [보기]에서 ㉢은 사람들은 독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적 편익과 사적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사적 편익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접종에 참여하고 그 반대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접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종에 참여할 때의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는 독감 예방접종을 더 적게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서 보건소의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을 사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 접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독감의 확산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 ㉣이 올바른 진술입니다. ㉠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독감 인플루엔자의 번식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줍니다. 정답은 ③.

2015 수능 기출 : 공공재

그림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가)~(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음악파일은 (가)에 해당한다.
- ② (나) 재화의 특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③ 공책이나 과자와 같은 재화는 (라)에 해당한다.
-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가)보다는 (다)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 ⑤ 자원고갈의 문제는 (라)보다는 (가)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해설)

이 문제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특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 재화를 구분하고, 이러한 재화의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이러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한 것으로 (가)는 ‘공유 자원’, (나)는 ‘사적재화’, (다)는 ‘음악파일’, ‘케이블 TV’와 같은 준공공재, (라)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①의 음악파일은 돈을 주고 사야 하지만, 음반CD와 달리 내가 음악파일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음악파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에 해당합니다. ②는 공공재의 특징으로 (라)에 해당합니다. ③의 공책, 과자는 ‘사적재화’이므로 (나)에 해당합니다.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는 (가), (라)에서 나타납니다. 정답은 ⑤.